

청소년의 문화빈곤증

박 선 영 · 서울YWCA Y-틴부 지도자

1. 문화, 청소년의 문화

청소년 문화? 과연 청소년의 문화가 존재하는가, 비행 청소년의 문화라면 혹시 몰라도, 아니 그들에게는 문화를 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청소년에 대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기 전까지, 청소년 단체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일들을 해보기 전까지 가졌던 나의 생각들이다.

하지만 알면 알게 될수록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듯이 나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위험한 것이었던가 하고 바로잡게 된다.

분명히 청소년문화는 존재한다. 그것이 어른들 눈에 옳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옳다.

2. '어른들은 몰라요'

서울YWCA Y-TEEN부(청소년부)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리고 넓게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요즘의 아이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아마도 내가 누구보다도 그들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속 모르는 어른들처럼 무작정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쩔 더 객관적이고 불쌍하거나 안쓰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마음만은 편안했을 런지도 모른다.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들만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어떠한 해결책이나 대안도 없이 어른들은 그들의 시끄럽다 못해 귀청이 터질 것 같은, 그리고 도저히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조차 없는 이상한 가사의 노래, 온 동네를 청소하고도 남을 길이의 힙합바지, 코걸이, 남학생의 귀걸이와 쥘바지(아니 레깅스), 어디서나 누가 보든지 상관하지 않는 대담한 이성 간의 포즈, 사자같은 머리에 도깨비 화장 등등에 대해 우선 거부감을 이야기 한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하라는 공

부는 안하고…….' 하지만 오빠부대의 열렬한 극성팬을 둔 청소년의 부모님들도 소시적엔 '나훈아'와 '남진' 오빠, '엘비스프레슬리'의 팬이 아니었던가.

다 제껴 두고라도 어른들은 청소년의 문화는 반드시 획일적이어야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 단정한 옷을 입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성 교제 등에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여 대학에 철커덕 붙여주는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그 계획과 무관해 보이는 일을 하면 비행 청소년 문화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 걸 수 없는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하위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곳에서 숨을 쉬기를 원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노래방, 비디오방, 락카페, 호프집을 전전하고, 모순되게도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돈벌이도 한다.

물론 어른들의 말씀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학생의 임무는 당연히 공부가 우선이고 유희 문화에 빠

저드는 것은 청소년 개인의 장래로 보나 국가적 장래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어른들이 말하는 건전 청소년 문화의 틀은 우리 어른들이 다양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일하는 Y-TEEN부는 30여 개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동아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건전하게 향유할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이 없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점점 비건전한 청소년 문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소위 비행 청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로부터, 자신도 어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잘하고 싶지만 어른들은 모범생에만 기대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신은 더 소외될 뿐이고 그런 자신을 맞아주는 사람들은 자신처럼 비행 청소년들 뿐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그렇다! 청소년들은 진정으로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상업주의의 좋지 않은 어른 문화를 모방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문화를 만들어 낼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니며 문화를 향유하고 어우러질 적당한 장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과중한 입시제도의 무게가 가날뿐 그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을 뿐이다.

3. 청소년들이 올바른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청소년 문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 문화를 비행문화로 단정지으며 그들의 문화를 중요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비롯되는 것이다. 많은 청소년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청소년 문화체험은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건전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다. 아이들이 성인 유흥업소에 들락거리지 않아도, 약물을 하지 않아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거리가 제공된다면 아이들이 굳이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는 일에 몰두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봉사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발을 디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아닌 남에게 후하기를 꺼려했고 익숙하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문화가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문화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넷째로, 교육제도의 개혁이다. 현 교육 제도 하에서 아이들이 건전한 문화를 누리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학벌위

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하에서 청소년들은 성적대로 그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실정이나 당연히 그 대열에 끼지 못하는 아이들은 위축되고 자신들을 받아주는 다른 곳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

매년 Y-TEEN부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한다. 하지만 과중한 수업과 수많은 시험에 노예가 되어 정작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문화 프로그램에 시간을 낼 수 없음을 자주 보게 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주인공이 없는 파티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개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당당한 자리매김을 하는 청소년으로

‘21세기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거창한 수식어를 붙여가며 말로만 떠들어대기보다는 우리의 청소년이 정말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자리매김하는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물질적·정신적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서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그들만의 건전한 문화 속에서 자라줄 것을 기대해 본다. 